

주 일 예 배

2016년 6월 19일 오전 9:30

창립 2015년 11월 8일
30 호

인도자 이사론 목사

경배와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다같이
부름의 말씀	미가 7:18-20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다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28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다같이
기도		김숙희 권사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이일을 어찌할꼬” 사도행전 2:22-38	이사론 목사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다같이
봉헌기도		이재욱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목마른 사슴	다같이
*축도		이사론 목사
후주		반주자

반주자: 지민아

어린이 예배는 주기도문을 마치고 Discovery Club 에서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구약성경: 시편 42편

1. 하나님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고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금주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23-29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교회 소식

-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예배 후에 점심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다같이 참여 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유선생님 닉이 지난 15일에 이사하였습니다.
주소: 3550 Challenger Point Drive, Loveland
-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이종선 집사님의 남편, Craig 가 7월 12일에 팔 수술을 합니다. 성공적인 수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다음주일 기도:** 한하나 집사

경이로운 세계를 잃어버렸을 때 마크 부캐넌

복음주의 작가 필립 안시는 이렇게 말했다.

“엘로스톤 국립공원 안에 있는 간헐천 ‘올드 페이스풀’(Old Faithful)을 처음방문했을 때가 기억난다.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과 독일인 관광객이 온천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치 군인들이 표적에 총구를 겨누듯이 땅을 뚫고 나온 그 유명한 구멍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조준했다. 온천 옆에 설치된 대형 시계는 다음 분출 시간까지 24분이 남았다고 친절히 알려주었다. 아내와 나는 식당에 앉아 간헐천을 내려다보며 시계의 숫자를 주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1분을 남겨 두었을 때, 우리는 분수처럼 치솟는 온천의 장관을 보기위해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때, 누가 신호라도 한 듯이 웨이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더러운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간헐천이 분수처럼 터졌을 때, 우리 관광객들은 환호와 탄성을 연발했다. 그러나 뒤를 돌아다보니 웨이터들은 아무도 그 장관을 구경하지 않고 있었다. 친숙해진 ‘올드 페이스풀’은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힘을 상실했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엄청난 신비와 경이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일상속에 묻혀 버린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선물로 호사를 누리 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8



러브랜드한인교회

KOREAN FIRST BAPTIST CHURCH OF LOVELAND

주일 예배 오전 9:30	Chapel	담임	이샤론 목사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30	Sanctuary	전화	(970) 691 - 6040
어린이예배 오전 9:30	Discovery Club	LovelandKoreanChurch@gmail.com	
중고등부 오전 9:30	Christian Education	주소	1003 W. 6 th Street. Loveland, CO 80537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Chapel	www.firstbaptistloveland.org/korean	